



## KBO리그의 새 역사 창조했던 KIA 7인의 3할타자들

KIA타이거즈가 2018시즌에도 3할타 재현에 도전한다.  
KIA는 2017시즌 압도적인 타선을 과시했다. 10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3할 타율을 기록했다.  
더욱이 팀 타율 3할2리는 KBO리그 출범 이후 최고 타율이었다. 1554개의 안타도 KBO 신기록이었다. 2위 두산(1499개)보다 56개를 더 때려냈다.  
규정타석 3할 타자들도 7명이나 배출했다. 역시 역대 최다 기록이다.  
타격왕 김선민(370)을 비롯해 최형우(342), 이명기(332), 로저

버나디나(320), 안치홍(316), 김주찬(309), 나지완(301)이 모두 3할대를 넘었다. 주전 가운데 이범호(272)와 김민식(222)만이 3할에 실패했다.  
KIA는 1554개의 안타를 앞세워 10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900점대(906점)를 돌파했다. 144경기를 대입하면 경기당 6.29점을 뽑았다.  
2016시즌과 비교하면 안타는 128개, 득점은 103점이 많아졌다. KIA 우승의 결정적인 원동력이었다. 헥터 노에시와 양현종의 20승도 강력한 득점력에 힘입은 바도 크다.

2017시즌 KIA팀 타율 유일하게 3할대  
KBO리그 출범 이후 최고 기록 0.302  
1554개 안타 유일하게 '900점대' 득점

세계신기록으로 자리잡은 8경기 연속 두 자리 득점도 초강력 타선이었기에 가능했다. 3할 타선은 상대 투수들에게는 커다란 위압감으로 작용했다.  
7명의 3할 타자 터널을 지나더라도 25홈런을 터트린 이범호를

상대해야 했다. 김민식도 타율은 낮지만 찬스에서는 강했다. KIA 타선을 상대하는 투수들의 피로감은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  
새해 KIA의 정상 수성 여부도 타선의 힘에 달려있는데도 과언이 아니다. KIA 마운드는 군복무를

미친 투수들이 가세했지만 올해도 선발야구를 펼쳐야 한다. 헥터, 양현종, 팻만, 임기영으로 이어지는 라인업이 주축이다.  
결국은 작년처럼 득점 지원력이 커야 선발야구가 힘을 받을 수 있다. KIA는 올해도 7인의 3할 타자들이 그대로 힘을 보여야 하는 팀이다.  
물론 결림들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 타격왕 수성에 나서는 김선민은 발목수술을 받았다. 재활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어 개막전 출전은 가능하겠지만 수술이 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

된다. 이범호와 김주찬은 37살, 최형우는 35살 버나디나 34살, 나지완도 33살이 된다. 시간의 무게는 스윙 스피드에 영향을 미친다.  
또 하나는 KIA 타선은 공공의 적이 되었다. 다른 팀들은 치밀한 분석을 통해 타자들의 더욱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SK 김광현, 넥센 조상우 등 부상 복귀 투수와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의 등장도 변수이다. 뜻하지 않는 부상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KBO리그의 새 역사를 창조했던 7인의 3할타자들. 그들의 2018시즌이 정말 궁금해진다.

## ‘승부수 통했다’ 차준환 “지난 시즌 좋은 느낌 받고 싶어 프리 교체”

마지막 선발전서 이준형에 2.13점차 대역전극

한국 피겨 남자 싱글 기대주 차준환(17·휘문고)이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출전을 위해 피운 승부수가 통했다.  
차준환은 7일 서울 목동실내빙상장에서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을 겸해 열린 KB금융 피겨스케이팅 코리아 챔피언십 2018(제72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68.80점을 획득, 전남 쇼트프로그램(84.05점)과 합계 총 252.85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기술점수(TES) 87.76점, 예술점수(PCS) 80.84점을 얻었다.  
1, 2차 선발전까지 합계 점수 순위에서 2위였던 차준환은 이번 대회에서의 선전으로 1~3차 선발전 합계 684.23점을 기록, 이준형을 2.13점 차로 제치고 대역전극을 일구는데 성공했다.  
그야말로 대역전극이었다. 마지막

선발전에서 27.54점의 점수차를 뒤집었다.  
사실 차준환이 마지막 선발전을 앞두고 피운 승부수가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차준환은 마지막 선발전을 앞두고 프리스케이팅 곡을 교체했다. 2017~2018시즌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곡으로 구스타프 홀스트의 '너플래닛'(The Planets)을 택했던 차준환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 시즌 프리스케이팅 곡인 '일 포스티노'(Il Postino)로 프리스케이팅 곡을 교체했다.  
또 쇼트프로그램에서 1번, 프리스케이팅에서 두 차례 시도하던 4회전 점프도 프리스케이팅에서 1번만 뛰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차준환은 "지난 시즌의 좋은 느낌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자신감있게 하고 싶었다. 먼저 코치 선생님께 의견을 여쭙봤다며 '1, 2차



7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72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 선수권대회 겸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싱글 1그룹에서 차준환이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차준환은 1, 2, 3차전 총점 684.23을 기록, 평창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선발전에서 안좋은 결과가 나왔고 스스로 그것을 깨고 작년의 좋은 느낌을 받고 싶었다"고 이유를 전했다.  
차준환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만큼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 긴장도 되겠지만, 떨치고 모든 요소를 잘 하고 싶다"며 "연습한 것을 모두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각오를 다졌다.

## 이준형, 관중 다 나간 뒤 텅 빈 아이스링크에서 울었다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72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 선수권대회 겸 평창올림픽 피겨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남자부 싱글 1그룹에 출전한 이준형(단국대)이 쇼트 연기 도중 실수로 넘어지고 있다.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만형 이준형(22·단국대)이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다. 동생 차준환(17·휘문고) 대역전극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2차 선발전까지 차준환에게 27.54점까지 앞선 이준형은 마지막 선발전에서 실수를 연발. 스스로 따 온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출전권을 동생에게 내줘야 했다.  
이준형은 운이 따르지 않는 선수다. 차준환 등장 이전 한국 남자 싱글 최강자였다. 2014년 8월 2014~2015 ISU 주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한국 남자 싱글 사상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차준환은 해당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7차 대회에서 3위에 올라 한국 남자 싱글 사

상 최초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를 밟았다.  
한창 성장세를 구가하던 이준형은 2015년 여름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후 고질적인 허리 부상에 시달리게 됐다. 같은해 말 스케이트날에 오른쪽 정강이를 찌르는 부상까지 입으면서 내리막길을 걸었다.  
남자 싱글에 앞서 지난 여자 싱글에서 김하늘(16·평촌중)이 2위로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쟀다. 김하늘은 이준형의 어머니 오지연씨의 지도를 받고 있다. 이준형이 7일 프리스케이팅에서 20점차 리드를 지켜냈다면 어머니와 평창올림픽에 나설 수 있을 터였다.  
믿을 수 없는 역전을 허용한 이준형은 대회 후 시상대 위에서도 갈라쇼 도중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관중이 모두 떠난 후에야 김진서(22·3위)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냈다.

## 광주FC, 창단멤버 수비수 박요한 영입

8시즌 간 73경기 3도움 기록... 좌우 측면 모두 소화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광주FC가 창단 멤버인 측면 수비수 박요한(29)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광주는 "창단멤버로 활약했던 수비수 박요한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금호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박요한은 원조 광주맨이다. 지난 2011년 신인선수 드래프트를 통해 고향 팀인 광주의 유니폼을 입었고, 2013년부터 충주 험멜과 경찰청 무궁화체육단에서 활약했다.  
8시즌 간 73경기 3도움을 기록한 박요한은 기동력과 투지가 뛰어나고, 안정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오버래핑이 좋다 특히 좌우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크로스가 날카로우며 박진섭 호의 새로운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요한은 "광주는 고향 팀이기 때문에 애착이 강했다. 어렵게 기회를 잡은 만큼 최선을 다해 경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손흥민, 골대 강타...11호골 다음에

토트넘, 잉글랜드 FA컵 AFC웬블던에 3-0 승리

손흥민(토트넘)이 교체로 등장해 제몹을 해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슈팅 골대를 때리는 등 좋은 감각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토트넘은 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웬블던에서 열린 AFC웬블던(3부리그)과의 2017~2018 잉글랜드 FA컵 64강전에서 3-0으로 이겼다. 토트넘은 한 수 아래인 웬블던을 맞아 유리한 경기를 펼치고도 골문을 열지 못했다. 후반 14분 손흥민이 투입되면서 공격이 풀렸다.  
후반 18분 해리 케인이 무사 시스코의 패스를 받아 골문을 열었다. 케인은 2분 뒤 추가골까지 터뜨려 2-0을 만들었다. 후반 26

분에는 상대 역습을 가로챈 안베르센이 원발 중거리 슈팅으로 썩기를 막았다.  
손흥민은 후반 40분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수를 달고 슈팅을 날렸지만 공은 골대를 때린 뒤 골키퍼 품으로 향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결국 우리 퍼포먼스가 좋았다. 이길만한 자격이 있는 경기"라고 평가했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13회 우승으로 이 부문 최다 기록을 갖고 있는 아스널은 64강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아스널은 2부리그 소속의 노팅엄 포레스트에 2-4로 역전패했다.

뉴시스



지역광고 마케팅 전문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